

200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국사)

성명

수험번호

3

1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의 사회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토기는 태토가 사질(砂質)이고 검정, 회색, 적갈색 등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없어 민무늬 토기 계열에 속하지만 옆으로 집선(集線) 무늬가 돌려지기도 한다. 밑바닥은 평평하고 몸체 양쪽에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려 있으며 목이 넓게 올라가다가 다시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청천강 이북 일대와 길림, 요령 지방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청천강 이남에는 출토된 것이 없다.

< 보 기 >

- ㄱ. 반달 돌칼과 홈자귀를 사용하였다.
- ㄴ. 연장자가 부족을 이끄는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
- ㄷ. 사람이 죽으면 돌널무덤, 돌무지무덤에 묻었다.
- ㄹ.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을 만들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은 백제가 중국에 보낸 국서의 일부이다. 이 시기 삼국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한 것은? [3점]

고구려의 잘못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말을 지껄이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김승의 저돌성을 품고 있습니다. 남쪽의 송과 수교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유목 민족인 유연과 맹약을 맺기도 하여 서로 순치(唇齒)의 관계를 이루면서 폐하의 영토[북위]를 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씩 새어나오는 물이라도 마땅히 일찍 막아야 하니, 지금 취하지 않으면 뒷날 후회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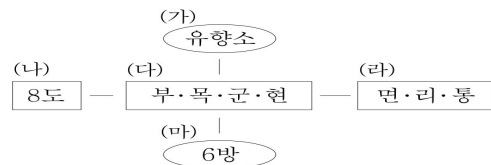
- ① 중원 고구려비의 비문 ② 칠지도의 명문
- ③ 단양 적성비의 비문 ④ 임신서기석의 명문
- ⑤ 을지문덕의 오언시

3. 자료의 밑줄 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사실은? [3점]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 산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또 승려를 뽑아서 향마군으로 삼아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 『고려사절요』 -

- ① 귀주에서 거란족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 ②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을 격퇴하였다.
- ③ 처인성에서 몽고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다.
- ④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다.
-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4. 그림의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중앙 정부와 수령 사이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였다.
- ② (나) - 안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감찰하였다.
- ③ (다) - 수령이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 ④ (라) - 향촌 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⑤ (마) - 좌수, 별감 등으로 편제하였다.

5. 다음 조치들과 유사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춘당대에 나아가 장용영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 초계 문신의 제술 시험과 유생의 경전 시험을 주관하여 1등한 이치호에게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규장각을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의 관원을 두었다.

< 보 기 >

- ㄱ. 신라 신문왕의 관료전 지급
- ㄴ.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 실시
- ㄷ. 조선 성종의 홍문관 설치
- ㄹ. 조선 후기 비변사의 구성원 확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은 각 시기의 정치 세력을 설명한 것이다.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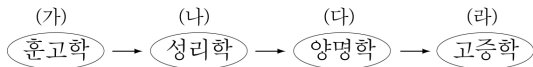
- (가)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 칭하면서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도 행사하였다.
 (나)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배출한 가문 출신으로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다) 원을 배경으로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세습시켜 나갔으며,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였다.
 (라)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배격하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 보 기 >

- ㄱ. (가) - 선종 세력과 결탁하였다.
 ㄴ. (나) - 무신 정변 이후 몰락하였다.
 ㄷ. (다) - 주로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다.
 ㄹ. (라) -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의 (가) ~ (라)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가) - 소학과 주자가례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ㄴ. (나) - 치국의 도로서 불교와 함께 발전하였다.
 ㄷ. (다) - 소론의 가학으로 연구되어 강화학과로 계승되었다.
 ㄹ. (라) - 실학과 세도 정치 시기의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자료의 밑줄 친 ㉠ ~ ㉤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3점]

㉠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로서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연합하여 공존하는 정치 구도는, 두 번의 ㉢ 예송을 거치면서 남인 우세 속에 서인이 공존하는 구도로 바뀌었지만 봉당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봉당 정치는 숙종 초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 공론이 중시되었고, ㉤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 ① ㉠ - 연산군의 언론 탄압과 폭정으로 발생하였다.
 ② ㉡ - 이이와 성혼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③ ㉢ -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④ ㉣ - 백성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배경이 되었다.
 ⑤ ㉤ - 연관과 이조 전랑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9.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동조한 학자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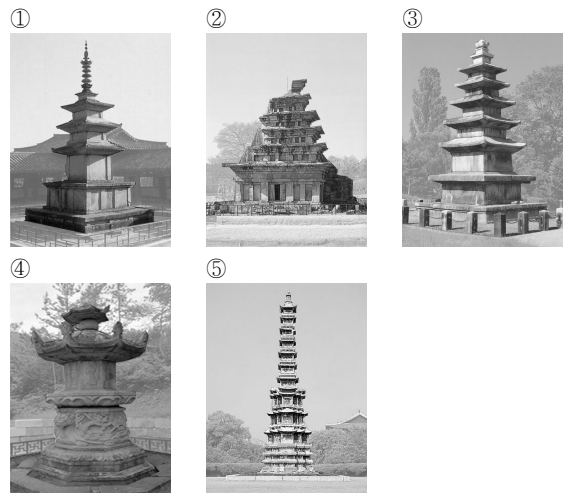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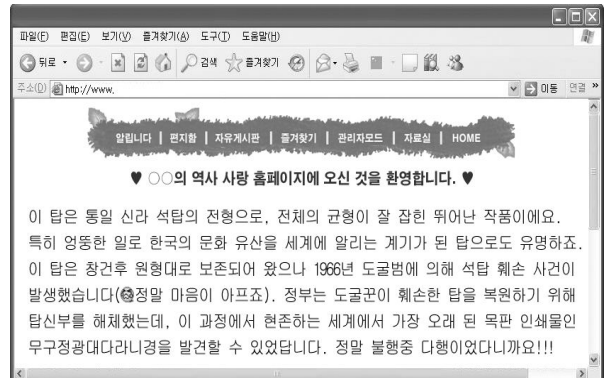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고 백성이 가난하므로 농사를 짓는데 현명한 재사(才士)를 쓰고 상공업을 발전시켜 나라 안의 물화를 자유롭게 유통하게 해도 부족한 것이 많다. 반드시 먼 지역과 무역을 한 후에야 재화가 늘고 여러 가지 이용품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 배로써 통상하려면 왜는 간사하여 늘 이웃 나라를 엿보고 있어 좋지 않고, 또 안남·유구·대만 등은 길이 멀고 험하여 가히 통상할 수 없으니 다만 중국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 기 >

- ㄱ. 경기 지역의 남인 출신이 주축을 이루었다.
 ㄴ.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ㄷ.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ㄹ. 농업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홈페이지에 올릴 탑의 사진으로 적합한 것은? [3점]



사회탐구영역

11. 자료의 밑줄 친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6년 7월 기유.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게 되면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진다.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군포를 1필로 줄이도록 하고 감액한 액수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 『영조실록』 -

< 보 기 >

- ㄱ. 토지 1결당 미국 12두를 부과하였다.
- ㄴ.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 ㄷ.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를 군액으로 충당하였다.
- ㄹ.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자료의 조치로 인해 나타난 사회 변화를 옳게 지적한 것은?

판부사 송시열이 아뢰었다. “이경억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상소하여 공·사 노비가 양인 처를 맞이하여 낳은 자식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어미의 역을 따르도록 청하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이이가 주장한 것인데 당시 조정에 막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양민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실로 이 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히 제도를 만들어 변통하소서.” 이에 왕이 공·사 노비의 양인 처 소생은 어머니의 역을 따르도록 법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 『현종실록』 -

- ① 노비 제도가 법제적으로 폐지되었다.
- ②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가 촉진되었다.
- ③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 ④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신분 세습 원칙이 확립되었다.
- ⑤ 남자 노비와 양인 여자의 자식을 신랑역천에 포함시켰다.

13. 다음은 조선 성종 때 과부 재가 문제를 논의했던 과정이다. 옳은 의견을 제시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예전대로 과부 재가를 허용하자.	고관 46명 중 찬성 20명
자녀가 없고 가난한 과부만 재가를 허용하자.	고관 46명 중 찬성 22명
과부의 재가를 엄금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자.	고관 46명 중 찬성 4명

<왕의 결정>
과부의 재가를 엄금하고, 재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라.

< 보 기 >

- 갑 -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재가가 자유로웠지.
- 을 - 결정은 화백의 의결 방식을 따랐어.
- 병 - 국왕은 성리학적 명분을 중시하였어.
- 정 - 과부 재가 금지 조치는 수신전 지급의 계기가 되었지.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4. 그림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대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정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료에게 준다.
- 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 ㄷ. 수조지 분급을 철폐하고 관료에게 녹봉만 지급한다.
- ㄹ. 관료들에게 경기도에 한정하여 과전을 다시 분급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인물의 일생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한 견해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857년 서라벌에서 출생함.
- 12세 부친의 권유에 따라 당나라로 유학을 떠남.
- 18세 빈공과에 합격함.
- 25세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을 지음.
- 29세 신라로 귀국함.
- 34세 대산군 태수로 부임함.
- 38세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함. 태수를 그만두고 유랑 생활을 시작함.
- 42세 가야산에 은거하며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김.

- ① 미숙 :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야.
- ② 덕규 : 골품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았던 6두품 출신의 숙위 학생이었어.
- ③ 태영 : 시무책 10여 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은거를 하였지.
- ④ 민철 : 유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 관심을 가져 불교나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지.
- ⑤ 혜경 :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저작이 전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16. 자료를 토대로 당시 사회 모습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만약 향리의 자제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과거에 응시하였을 경우 처벌한다. - 『태종실록』 -
- “청컨대 서반의 관직을 줄이고 따로 잡직을 설치하시어 문무관의 지위를 높이소서.” 하였다. 이에 상정소로 하여금 잡직 설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게 하였다. - 『세종실록』 -
- 서얼은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 - 『경국대전』 -

< 보 기 >

- ㄱ. 정부는 양반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 ㄴ.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 ㄷ. 서얼 차별은 성리학적 가족 윤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 ㄹ. 기술직 관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역대 왕조에서 시행했던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농민들은 자연 재해, 고리대, 과중한 세금 부담, 탐관오리의 수탈 등으로 전호가 되기도 하고 노비가 되어 자신에게 부과된 역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기도 하였다.

- ① 호폐법과 오가작통법을 시행하였다.
- ② 기근에 대비하여 구황 작물을 보급하였다.
- ③ 진대법을 시행하여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였다.
- ④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
- ⑤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18. 다음 글의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그는 대립의 시대에 화해를 강조한 승려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으나 엄격한 신분 제도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빚어졌고 불교의 여러 종파가 대립하고 있었지요. 그는 이러한 인간 세상의 대립을 종식시키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자 화쟁(和諍)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종파의 상이한 교리상의 문제, 대승과 소승, 신·구 불교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

- ①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습니다.
- ②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 ③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하였습니다.
- ④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⑤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19. 다음 과제를 제시받은 학생들의 발표 사례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수행 평가> 다음 글을 입증할 역사적 사례를 발표하기

한국사에 이상 시대를 열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양반 관료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세종 재위 기간에는 사대부 중 참혹한 형벌을 당한 사람이 없었고,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 재정이 충실해졌으며, 학문이 찬란한 꽃을 피워 다방면의 서적이 간행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대의 사람들이 세종을 해동(海東)의 요순(堯舜)이라고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 ① 갑 :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 ② 을 :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습니다.
- ③ 병 : 서원을 설립하여 학문을 장려하였습니다.
- ④ 정 : 측우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하였습니다.
- ⑤ 무 : 궁중에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20. 자료를 토대로 추론한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어머니가 재산을 분배할 때 나익희에게 따로 노비 40명을 물려 주었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의 외아들이라 해서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어찌 더럽히겠습니까?”라고 하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따랐다. - 『고려사』 -
-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계에 따라 그 수를 줄이도록 하여..... 여러 처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역시 본가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는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 『고려사』 -

- ①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혼인 형태였다.
- ② 자녀 균분 상속제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 ③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고 친영 제도가 시행되었다.
- ④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거의 대등하였다.
- 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부인이 재산 분배권을 행사하였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